


<div>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div> <div>보도자료</div> <div>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div>			
보도 일시	2022. 9. 14.(수) 10:00	배포 일시	2022. 9. 14.(수) 09:00
담당 부서 <총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성장촉진과	책임자	과 장 최병성 (044-200-3180)
		담당자	사무관 강주영 (044-200-3181)

행복도시 공동대학(캠퍼스), 24년 개교 목표!

- 대학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가 가능한 신개념 대학(캠퍼스) 구현 -

- ☐ 2020년 모집 결과 서울대, 케이디아아이(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공주대 등 6개 대학 입주승인, 2024년부터 순차 개교 예정
- ☐ 9.16 2차 입주기관 모집 공고로 혁신성장 환경 및 교육기반 조성 가속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9월 14일(수),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다수의 대학이 입주해 도서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공동대학(캠퍼스)’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1. 공동대학(캠퍼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행복도시 공동대학(캠퍼스)는 도시의 지속 성장 동력으로서 우수 대학을 유치하되, 그 동안 정원 확충과 재정 확보 문제로 신규 대학(캠퍼스)을 건립하기 어려웠던 대학·연구기관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분양가로 입주하여 도서관 등의 지원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대학(캠퍼스)이다.

이는 기존 대학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다른 대학·기관과의 융합을 통해

기관 간 발전, 나아가 도시 및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다.

공동대학(캠퍼스)는 행복도시 집현동(4-2생활권) 대학용지에 조성되며, 대학이 교사(校舍)를 임차하여 입주하는 ‘임대형대학(캠퍼스)’와 대학이 부지를 분양받아 직접 교사를 건축하여 입주하는 ‘분양형대학(캠퍼스)’로 구성된다.

‘임대형’은 입주 대학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도서관·체육관·강당·기숙사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총 연면적 약 69천㎡로 조성되며, 관리·운영은 별도로 설립되는 공익법인이 맡을 예정이다.

‘분양형’은 입주기관이 토지를 매입하여 교사시설을 직접 건립하는 대학(캠퍼스)로, 분양형대학(캠퍼스) 입주기관 역시 임대형대학(캠퍼스) 내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동시설을 무상(관리비 별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동대학(캠퍼스)의 부지 조성과 임대형대학(캠퍼스) 공사*는 사업시행자인 엘에이치(LH)가 맡아 2024년 임대형 대학(캠퍼스) 개교를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지하 1층, 지상 5층, 8개동 / 연면적 58천㎡, 대지면적 149천㎡(기숙사는 사학진흥재단에서 연면적 11천㎡, 507실 규모로 건립 추진 중)

2020년 모집을 통해 입주 승인된 대학으로는 임대형 대학(캠퍼스)에 서울대학교·케이디아아이(KDI)국제정책대학원(행정·정책대학원), 충남대학교(의대·대학원), 충북대학교(수의대·대학원), 한밭대학교(AI/ICT 계열 대학·대학원)가 있으며, 분양형 대학(캠퍼스)에는 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AI/ICT 계열 대학·대학원)가 있다.

이 대학들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충남대·공주대·한밭대는 공동대학(캠퍼스) 융합 교육·연구의 선도 모범사례로서 공동교육

과정 운영 등의 공유대학 모델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근 ‘세종테크밸리’ 내 입주 확정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기업들과 연계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교육·연구·산업 협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2. 공동대학(캠퍼스) 2차 입주 모집

이번 입주기관 모집의 공급 대상은 총 6개 분야별 필지로 약 101천㎡ 규모이며, 분양가는 약 35만원~40만원/㎡(중위값 37만원/㎡)으로서 행복도시 조성원가(약 90만원/㎡)의 약 41% 수준이다.

또한, 도서관·체육관 등 연면적 약 22천㎡ 규모의 공동시설은 임대료 없이 무상 사용토록 함으로써,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의 재정 부담을 낮추어 공동대학(캠퍼스)을 더욱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계열은 2020년 모집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행정, 정책 등)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공학(E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참고로 행복청은 지난 8월 31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수도권 소재 6개 대학 등 21개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대학(캠퍼스) 2차 모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모집 일정은 9월 16일(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서 접수(10.14~10.21), 심사(평가)(11.7~12.31), 최종 입주승인(2023.2.10)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 향후 추진 계획

공동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은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한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중요 과제이다.

지난 2022년 7월 임대형대학(캠퍼스)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대학(캠퍼스)의 안정적인 개교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주체인 공익법인 설립·운영 예산 확보 및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희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8월 31일(수) 입주설명회에서 보인 호응이 2차 입주모집으로 이어져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앞으로 1차 입주승인 기관의 안정적인 개교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을 추가로 유치하여 행복도시 공동대학(캠퍼스) 사업이 교육과 연구, 산업 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성장추진과	책임자	과 장	최병성 (044-200-3180)
		담당자	사무관	강주영 (044-200-3181)
담당 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판매부	책임자	부 장	박현옥 (044-860-7845)
		담당자	차 장	이상현 (044-860-7821)